

■ 반쪽 서평 ■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에티엔 발리발르 지음,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488쪽.

*We, the People of Europe?:*

*Reflections on Transnational Citizenship,*

Étienne Balib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91pp.

에티엔 발리바르가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유럽 연합이라는 제도적 통합에서 더 나아가, 유럽 통합에 걸 맞는 유럽 시민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다시 말해 유럽통합이라는 하드웨어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정체성, 유럽의 시민(the people of Europe), 혹은 유럽 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권리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발리바르는 우선 무엇보다도 유럽 내부의 분리선이 사라지지 않은 한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European Apartheid"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발리바르는 유럽 내의 타자, 즉 동남부 유럽에 대한 분리 정책을 비판한다. 과거에 유럽 외부에 존재했던 경계선이 이제 내부로 옮겨 와 동유럽 사람들에게 대해, 그리스와 같은 동남부 유럽 사람들에게 대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내부적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강력한 유럽연합군이 창설 되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도 유럽 시민의 탄생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가입을 해도 유럽의 2등 시민 대접 밖에는 받지 못하는 동유럽 사람들, 그나마도 가입하지 못해 유럽 내에서조차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동유럽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이다.